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24 한국선의 정체성



▶ 한줄 요약
중국선의 영향을 받고 그것을 수용하여 전개하면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라는 땅에 토착화하려는 주체성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발현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선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보편적 다양성 흡수한 독자적 한국선



1. 선법의 출현과 그 기반

선의 시작은 붓다가 깨달음을 얻는 방식으로 채택한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선의 역사는 불교와 함께 비롯되었다. 이후로 인도불교에서 선의 역할은 다양한 불교의 전개에 공통하는 수행의 행위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추구하는 근원적인 기능으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선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성격으로, 인간의 마음에 내재하는 사유의 속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 결과 인도불교의 역사에서는 항상 점수의 측면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수해의 경지에 대해서도 차제적인 탐구가 깊이 천착되었다.

이러한 인도선의 성격은 이후로 불교가 성립된 지 1000년 무렵에 보리 달마에 의하여 중국에 전래됨으로써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변용되었다. 특히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수증관의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모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선법을 위주로 하는 소위 선종(禪宗)으로 형성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전개를 보여주었다. 인도불교의 경우와 다르게 중국불교에서는 선을 중심으로 하는 교단이 형성되면서 그 행위규범도 상당한 변모를 보이면서 차제적인 수증관과 판이한 결과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곧 7~8세기 조계 혜능에 이르러 수행과 깨달음의 관계를 다르지 않게 설정하는 수증일여(修證一如)가 그것이었다. 그로부터 더욱 크게 발전한 남종의 돈오선법에서는 송 대에 선의 새로운 수행법이 창출되는가 하면, 다양한 선의 문화로 전개되었으며, 수많은 선문헌을 통하여 선사상을 보다 심화하고 확충하는 측면으로 파급시켜왔다. 그 결과 중국선은 중국불교의 특징으로서만 아니라 선종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전개하였다. 그것은 발심과 수행과 깨달음 그리고 인가와 전법을 강조하는 문화에 이르기까지 가장 선적(禪的)인 주체성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은 중국선은 역사적으로만 크게 확대된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을 넘어서 한자 문화권을 근거지로 하여 동아시아불교의 전반에 걸쳐서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일례는 한국불교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바로 중국선의 이와 같은 전개과 그 영향을 바탕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까닭은 한국선의 수입으로부터 발전과 전개와 특수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중국선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분야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와 중국과 한국이라는 지역으로 나누어 선법을 생각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한자 문화권의 보편적인 속성을 지니게 된 것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선법의 역사는 불교의 역사만큼이나 항상 어디에서나 그 보편성에 근거하여 형성되고 전개되어왔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한자 문화권이라는 공통적인 기반이야말로 선종의 발생과 전개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성취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 점은 선종의 특성을 논의할 경우 대단히 큰 장점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굳이 번역이 필요 없는 언어의 통일성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딱히 동일한 것만도 아닌 면모가 폭넓게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을 지니게 되었다.

2. 한국선의 정체성

이러한 한자 문화권 가운데서도 온전히 발생하고 전개되어 온 한국선이면서 중국선의 정체성과 구별되는 특징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 '한자'라는 동일한 문자의 기반에서 형성되었지만, 그것을 부단히 변용시켜서 활용했다는 점에서는 토착의 문화와 사상으로 인하여 본래의 선종 특징과 구별되는 특이한 점이 배태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우선 중국선의 경우는 인도불교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새로운 선법에 해당하는 소위 달마조사를 연원으로 하는 조사선을 형성하고 그것을 꽃피우면서 전개되었다. 여기에서 추구하는 조사의 개념은 선종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한국선에서는 그와 같은 중국 조사선법을 직수입하고 그들의 법맥을 수용하여 전개하는 가운데서도 한편으로 여래선과 상대되는 의미로도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선과 차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소위 조사선의 한국적인 선법의 창출로서 전개된 진귀조사설(眞歸祖師說)이 그것이다. 이 경우에 조사선은 달마를 연원으로 하는 조사선의 의미와 구별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전을 바탕으로 하는 언어문자의 선리에 기반한 여래선(如來禪)의 상대적인 의미로 활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선지식이 납자를 교화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파주(把住)와 방행(放行)의 방식을 들 수가 있다. 전자는 선지식이 지도하는 납자를 단도직입으로 깨우쳐주려는 조사선적인 방식이고, 후자는 노파심절한 방식으로 일깨워주는 여래선적인 방식에 해당한다. 그런데 한국선이 수입되던 초기에 출현한 진귀조사설은 바로 전자의 관점에서 출현한 선리로 신라에 선법이 수입되는 즈음에 부득불 필요했던 방편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진귀조사설은 이미 세련된 발전을 구가하고 있던 상황에서는 굳이 필요성이 미약했겠지만, 처음으로 선법이 수입되는 9세기 중엽의 신라불교의 상황에서는 가장 필요불가결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이 점은 신라의 선법에 나타나는 특수한 상황이면서 이후로 한국선 수행의 전반적인 기저로 점철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선수행의 지도방식으로 계승되어 오고 있다.

중국선, 달마 연원의 조사선 전개
한국선, 중국 조사선 직수입했지만
진귀 조사설 창출로 중국선과 차별
고려, 묵조·간화 수입 문자선 계기

한편 6~8세기 중국선이 형성되던 시기에 전개되었던 순수한 조사선법이 당나라 시대를 거치고, 수백 년이 흐른 송 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폐풍의 모습도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은 조사선의 이념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그에 수반되는 본래의 수행정신을 상실한 결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송 대 중기에는 초기의 순수한 조사선풍의 모습으로 회복하려는 자각이 싹틈으로 말미암아 그 일환으로 묵조선(默照禪)과 간화선(看話禪)이 새롭게 출현하였는데, 이후 12세기 말엽에는 고려에 수입됨으로써 한국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중국의 선종사에서는 당 대부터 비롯된 공안선(公案禪)의 수행가풍 및 송 대에 크게 발전한 문자선(文字禪)의 수행가풍이 변질되면서 발생했던 의리선(義理禪)의 폐풍을 극복하려는 방법으로 묵조선과 간화선이 등장하였다. 그렇지만 고려의 선법에서는 오히려 묵조선과 간화선의 수입으로 인하여 새로운 문자선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결과가 진각 혜심(眞覺慧諶)의 〈선문염송(禪門拈頌)〉이라는 공안집의 편찬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백운 경한(白雲景閑)의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라는 전등록의 편찬으로 전개되었다. 이들 문헌들이야말로 공안참구를 위한 문자선의 텍스트들이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고려시대 선수행법의 전개는 간화선과 묵조선과 문자선과 공안선이 혼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이 점은 중국의 선법을 수입하면서도 고려선법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면모이기도 하다.

또한 신라로부터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일관되게 전개되었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선과 교의 관계였다. 선법의 수입기에는 선의 정착을 위한 까닭에 의도적으로 교학보다 선법의 우월성을 주장한 내용이 제기되었지만, 그다지 큰 역할을 이루어내지는 못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소위 선교차별을 겨냥한 주장에 해당하는 무설토론(無舌土論)이었다. 이런 성격의 부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으로 집대성되어 출현하였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보조 지눌의 선교융합의 입장은 이후 한국의 선종사의 전개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이후 조선 중기의 청허 휴정에게까지 계승되었다. 그러나 휴정은 한편으로는 선과 교에 대하여 이중적인 입장으로 선을 중심에 두고 교를 보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사교입선(捨敎入禪) 내지 종교입선(從敎入禪)의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선주교종(禪主敎從)의 견해를 보여주었다. 한국의 선종사는 중국선의 경우보다 보다 지속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선과 교의 관계에 대하여 특수한 모습을 노정하였다.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선과 교의 융합을 주장했는가 하면, 때로는 그들 차이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선교의 관계에서 차별의 입장을 지니게 된 근원적인 배경으로는 선의 우월의식에 그치지 않고, 선종 내에서도 오로지 임제종만 정통이라는 문중의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조선시대의 선법은 선종오가 가운데서 임제종만 조계 혜능 법맥의 직전(直傳) 내지 정전(正傳)이라는 의식이 여러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것은 청허 휴정의 〈선가귀감(禪家龜鑑)〉을 비롯하여 환성 지안(喚醒志安)의 〈선문오종강요(禪門五宗綱要)〉, 백파 긍선(白坡亘璇)의 〈선문수경(禪文手鏡)〉 및 다양한 사기(私記), 용성 진종(龍城震鍾)의 어록에 이르는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지속되었다. 이들 선종오가 가운데 임제종만 정통이라는 의식은 중국선종의 법맥의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유달리 한국선에서 두드러진 임제종 자파의 전개와 무관하지 않았다. 고려 초기부터 수입된 중국선의 임제종은 고려 중기는 물론이고 후기에도 여전히 강력한 법맥의식의 발로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임제종에서 내세우는 간화선의 수행방식도 대혜 종고(大慧宗杲)와 몽산 덕이(蒙山德異)의 지도방식이 혼재되어 계승되었다. 나아가서 화두의 참구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개의 화두를 긍정하는 중국과 일본의 간화선과 차별되는 점으로, 한국선종의 간화선법의 방식에서는 하나의 화두참구를 중시하는 풍조의 전통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국선의 특징을 담보해주는 이들 몇 가지 점들은 한국불교의 역사에서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멀리 중국에 유학하여 끊임없이 그들의 사상을 익히고 문화를 습득하여 중국선의 영향을 받고 그것을 수용하여 전개하면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라는 땅에 토착화하려는 주체성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발현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선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한국선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특징은 비단 위에서 언급한 몇몇 경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전반적인 한국선의 역사는 항상 중국선의 전파와 그 발전으로부터 시작되고 전개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단순히 그런 까닭에 혹자에 의해서 한국선은 중국선의 아류라는 폄하된 평가도 있었다. 그것은 계승 및 발전의 과정에서 창출된 다양한 선법의 이면성을 간과한 견해에 불과하다. 중국선과 관련하여 한국선은 그 보편적인 다양성을 흡수함과 더불어 이 땅에서 피어난 특수성이 새롭게 착종(錯綜)되면서 성취된 결과였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모습은 국내에서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 유학하여 구법한 선승 가운데는 끝내 귀국하지 못한 다수의 선승이 일궜던 선법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한국선의 범주에 포함시켜 두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끝〉

〈동국대 HK교수〉



제 105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6